

SWITZERLAND

This is Tomorrow !

This Is Tomorrow aims to explore the future of craft and to discover how, in opening a dialogue and an experiencing possibility to a broad audience, can change society.

스위스관 이것이 미래다!

공예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
관객들에게 공예가 창조하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.
도구, 방법, 생각 등을 통해 미래의 공예가 어떻게
창조 될 것인지 예상 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.



10th International
Craft Biennale
Cheongju 2017

«Swiss Pavilion»

